

'익산 다이로움' 발행액 2조 돌파

가입자 수 25만6000여명·결제율 98%... 지역 상권 활력 불어넣는 효자 노릇 '특독'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多e로움)의 총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2020년 1월 출시한 다이로움은 2년 9개월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으며, 2조원에 도달하는데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다이로움 가입자 수는 25만6,000여명으로 발행 첫 해 가입자 수인 8만4,000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익산시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多e로움)의 총 누적 발행액 2조 원을 돌파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다이로움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결제율은 98%로 약 1조 9,517억원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익산시는 올해 발행 카드사를 4개사까지 확대해 시민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지역저점, 청년몰, 착한가격업소 등 특정 가맹점 75개소를 대상으로 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등 정책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20% 특별 할인 정책을 운영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익산시는 다이로움의 2조원 돌파를 기념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이벤

트를 추진한다. 다이로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 중 500명을 추첨해 다이로움 로고가 새겨진 기념 우산을 증정한다. 설문 결과는 다이로움 운영 개선과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 다이로움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다이로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다이로움의 안정적인 이관과 시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내년부터 새로운 대행사와 함께 제3기 다이로움 운영에 나선다. 다이로움 유효기간을 구현하고, 모바일 쿠폰형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다이로움을 한층 더 고도화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공'

노후관 정비·관망 관리 통해 현재 유수율 90% 달성

익산시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지역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고, 예산절감 효과까지 성과를 내고 있다.

1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당초 목표였던 유수율 85%를 초과해 90%를 달성했다.

시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북 지역협력단과 손을 잡고 2020년부터 '익산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비 31억원 등 총사업비 606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익산시 전역의 노후 관로를 정비하고 중분류 6개소와 소분류 53개소로 나눠 상수도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

한다. 상수도 시설 전반을 정비해 단수나 누수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경영 수지를 개선한다.

이번 사업으로 66.5%에 불과했던 사업대상지인 신홍급수구역의 유수율이 노후관 정비와 관망 관리를 통해 목표 유수율인 85%를 넘어 90%까지 향상됐다.

유수율 증가는 안정적인 수도물 공급과 재정 부담 완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관로에서 연간 약 230만 톤(일 평균 6,300여 톤)의 누수량 절감을 통해 연간 약 23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청년뜰, 청년 대상 홍보부스 운영

군산대 잡 페스티벌서... 1:1 현장면접·입사 컨설팅 진행

군산시의 청년뜰(센터장 오원환)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7회 국립군산대학교 잡 페스티벌 와글와글 취업 JOB페어 행사에 군산 청년(18~39세)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홍보 및 컨설팅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는 군산시 청년뜰의 위치 및 프로그램, 대관 등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청년정책 안내와 컨설팅 상담까지 할 수 있게 기획하였다.

특히, 청년뜰에서는 행사 참여자들이 즐길 수 있는 청년정책과 상식에 관한 다양한 퀴즈를 준비하여 참여한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으며, 이벤트 경품으로 폴딩박스, 담요, 보조배터리, 장바구니, 볼펜과 메모지 등 실생활에 유용한 물품들로 준비하여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취업박람회에는 30개 내외의 기업들이 참가하여 1:1 현장 면접과 입사 컨설팅을 진행했다. 청년뜰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 커밍, 군산' 사업의 일회용 면접비 지원사업과 연계, 대상 청년들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신청도 할 수 있게 지원하였다.

면접비 지원사업은 군산시 소재 기업에 면접을 보는 주소지가 군산 외 지역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고향을 떠난 청년들의 유턴 및 관의 청년들의 신규 유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군산 관내에서의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여 취업으로 군산에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오원환 청년뜰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대학과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어 지역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과 정책홍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개시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 시...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권 제공

군산시는 10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시민들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a.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10월 2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서비스도 본격 개시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전문적인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신청과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 보건소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마음의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063-454-5052)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또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에서는 해당 지

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과 주소를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으며, 네이버 지도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다.

특히 10월 10일부터는 마음투자 바우처로 검색 시 이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주변 서비스 제공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

군산시 보건소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도입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마음의 건강을 되찾길 바란다"라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마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고령자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방문 신청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문의(063-454-5052)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왕궁보석테마관광지서 매주 가족소풍 행사 운영

익산시가 가을 나들이를 준비하는 가족들을 위해 왕궁 보석 박물관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익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왕궁 보석테마관광지에서 '가족소풍'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되며, 오후 1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익산 9경 △익산 △보석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펼쳐진다.

체험으로 연꽃팽이, 아가페 정원 장식품, 바람개비, 무궁화 열쇠고리, 보석 책갈피 등을 무료로 진행한다. 편백 스프레이, 커피박 열쇠고리·화분 만들기 등 유료 부스도 운영해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 가족이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솜사탕 매직쇼, 버블 퍼포먼스, 코믹 풍선아트쇼, 마술 공연 등도 준비됐다.

아울러 소정의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게임형 프로그램도 다시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친환경 제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플라마켓과 먹거리 부스가 운영돼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디지털 영상편집 기초교육

익산시가 공공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 영상 제작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교육을 운영한다.

시는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10월 16일까지 '디지털 영상편집 기초교육 과정' 참여자 12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영상편집 프로그램 캡컷(Capcut)을 활용한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 자료를 영상으로 구성해 본다.

참여 신청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www.ismedia.or.kr)에서 할 수 있다. 수강료와 교육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63-833-0676)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